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 -(으)니까’에 대한 통사·기능 연구

진염평(陳艷平)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 교육 전공
chenyanpingdl@hanmail.net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아서’와 ‘-(으)니까’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교착어(膠着語)인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어미는 그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어미가 가지는 통사·의미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통사·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나 이상 여러 가지 통사·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별개의 형태소가 동일한 통사·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함과 차이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체계를 한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 곧 통사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화용론적 측면의 다양한 방향을 고려하여 한국어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것의 의미, 통사 및 화용론적인 특징과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찾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로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과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된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거론되거나 인용되는 것으로는 김승곤(1979), 이상복(1981), 최현배(1982), 남기심·루코프(1983), 허웅(1984), 황화상(2008), 윤평현(1991, 2005)이 있다. 주로 이 두 연결어미의 의미와 통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그중에서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은 주로 ‘아서’가 ‘원인’, ‘-(으)니까’가 ‘이유’를 나타내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인지, 보편적인 전제에 기반한 것인지¹⁾, 또한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에 있는지, 후행절에 있는지²⁾를 분류시켜 이 두 연결어미의 의미를 대조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다른 견해로는 ‘아서’가 원인이 아닌 사건 사이의 상관성이 물리적 힘이나 화학 작용 등에 의하여 주어졌 것이고, ‘-(으)니까’도 ‘이유’가 아닌 사건 사이의 상관성이 인간의 사유 작용 개입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논의³⁾가 있고 인과관계를 인식 차원, 화행 차원, 명제/내용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으로 ‘아서’는 내용 차원, ‘-(으)니까’는 인식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논의⁴⁾도 있다.

통사에 관한 연구는 남기심(1978, 1983), 이상복(1978), 윤평현(1989, 2005)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품사 기준으로 주어제약, 시상 선어말어미 결합제약, 의항법 제약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수업모형이나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논의로는 이정란(2003), 김지혜(2008), 정정덕(2003) 등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서’와 ‘-(으)니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두 연결어미의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법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이므로 어느 한 가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입체적인 설명을 해야만 정확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아서’, ‘-(으)니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동태적인 시각에서 이 두 연결어미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인간의 다양한 표현활동의 한 과정으로서의 언어는 복잡한 기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분석만으로 언어구조 전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 1) 남기심·루코프, 「논리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아서’ 구문」, 『국어의 통사·의미론』(탑출판사, 1983), 2-26쪽.
 - 2) 윤평현, 『현대 국어 접속어미 연구』(도서출판 박이정, 2005), 150-176쪽; 황화상, 「연결어미 ‘아서’, ‘-니까’의 의미기능과 후행절 유형」, 『국어학 51』(2008), 57-88쪽.
 - 3) 이상복, 「연결어미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1981), 55-80쪽.
 - 4) 손성욱, “Cognition, Affect, and Topicality of the Causal Particle Nikka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2*(1993), pp. 83-93.

전통문법의 시각으로 보면,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그 이론을 기초로 발전된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은 언어 자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였으며, 주로 통사관계를 언어구조의 중심이라고 간주하고, 문법의 생성능력을 강조한 것이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자연 언어 형식의 특징에 대한 기술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기능주의 언어학은 언어형식의 정보전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였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구조의 설명을 중요시하고 의미를 소홀히 하였다. 기능문법에서의 의미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된 결과이며, 의미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기능, 언어 환경, 언어형식 등이 있다. 형식은 의미의 표현이고, 의미는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은 의미와 형식, 그리고 의미와 형식 사이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야 정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문법은 언어가 복잡한 체계이므로 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완전한 연구를 이루기가 어렵다. 문법 연구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통사 측면, 의미 측면, 그리고 화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형식과 의미의 결합, 정태와 동태의 결합, 구조와 기능의 결합, 기술과 설명의 결합방식 등을 통해야만 정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전통문법 이론은 언어 교육의 필요에 따라 어떤 형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구분하는 ‘규범성 규칙’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구조주의 문법이론의 특징은 기술성(記述性, description)으로 구조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대상 언어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개의 형태소 추출에는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의미 분석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문법, 특히 변형문법 이론에서는 설명성(explanation)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은 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규칙보다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즉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형식주의 언어학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언어에 대한 해석을 언어계통 내부 요소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기능주의 언어학(functional linguistics)은 언어계통 외부의 요소를 중심으로 문법 성분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언어는 의미, 화용, 그리고 문법의 특징 등이 서로 언어체계를 제약하므로 단순히 문법적으로만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언어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 이는 문법 이외의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연구할 때는 문법론, 의미론, 화용론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다각적인 연구방법은 문법의 기술성과 설명성을 과학적으로 결합시키는 특징이 있다.

문장의 통사적인 분석과 의미적인 분석은 주로 문법에 대하여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정태연구(靜態研究)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화용론적인 분석은 표현을 중요시하므로 문법에 대한 동태연구(動態研究)라고 할 수 있다. 즉, 문법 연구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통사 측면, 의미 측면, 화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형식과 의미의 결합, 그리고 정태와 동태의 결합방식 등을 통해야만 정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통사론(syntactics), 의미론(semantic), 화용론(pragmatics) 등 세 측면을 중국에서는 세 가지 평면, 즉 '3개평면이론(三個平面理論)' 또는 '삼유이론(三維理論)'이라고도 한다. '3개평면이론'이란 '의미평면', '통사평면', '화용평면'을 가리킨다. '3개평면이론'에 의하면 모든 문장(언어)은 '의미, 통사, 화용'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개평면이론'은 문법 연구의 매우 효율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평면의 연구는 문장에 대한 의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장의 각 구성 부분과 성분이 맺어진 일정한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장의 각 구성 부분의 결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문장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인 특징이다.

전통문법 연구에서 중요한 방법인 구조주의 문법 이론은 언어성분에 대한 구조적인 통사론적 성분 연구와 어휘 내지 형태소의 의미론적인 연구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기호(문법성분)와 기호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문법에 대한 정태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하나의 기호체계로서 주관적인 인물(화자, speaker)이 객관적인 사물(object)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객관적인 사물, 즉 언급 대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법을 연구할 때 이런 언어기호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그리하여 더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연결어미는 우선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어미로 통합되는 문장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데, 이런 특성은 연결어미의 '의미론적인 선결성(先決性)'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로 통합되는

구문에서 그 어미에 통합할 수 있는 용언 어간, 선어말어미 등의 특징, 그리고 모문(metric sentence)이 가지는 문장의 서법 제약과 주어 제약 등은 문장의 구조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연결어미의 통사론적인 제약성(制約性)’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의 구체적인 통합 환경,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가장 적합하고 제일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연결어미의 ‘화용론적인 선정성(選定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의미에 중점을 두어 연결어미의 문법형식을 검토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법은 의미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언어규칙이므로 의미는 문법의 규칙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입체적인 연구는 ‘형식’과 ‘의미’의 결합, ‘형태’와 ‘동태’의 결합, ‘구조’와 ‘기능’의 결합, ‘기술’과 ‘설명’의 결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에 따라 의미론적(semantic)·통사론적(syntactic)·화용론적(pragmatic)인 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법론적인 검토는 언어가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언어의 입체적(立體的)인 추상 내용을 선형(線型)의 문장으로 배열해준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하나의 정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문장구조에 대한 제약에 따라 문법 단위를 이용하고 발화 환경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발화 환경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청자(상대방)가 발화 당시의 언어 환경에서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구문(발화) 환경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문장의 문법 특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그 원형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론적·문법론적·화용론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한국어의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를 검토하고, ‘문법 연구의 3개평면 이론’을 원용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징을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연결어미 각각에 대한 전면적인 용법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Ⅲ. ‘-아서’와 ‘-(으)니까’ 분석

1. ‘-아서’와 ‘-(으)니까’의 의미론적 분석

의미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양면(兩面)인 형식과 내용 중에서 내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이 내용에 관한 연구가 바로 의미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식에 관한 연구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사전적인 의미 분석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의 사전적인 의미란 한 문법형식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대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사전에서 제시하는 의미들을 정리함으로써 문법형식의 정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1) ‘-아서’

연세한국어사전(2004: 1210쪽)

‘-아서’(연결어미)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1) 원인을 나타냄

(가) 그해는 몹시도 날이 가물어서 제비들이 벌레를 잡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나) 어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2) 이유를 나타냄

(가) 선생님께서 약속을 잊으실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 그들은 겁이 나서 한나라 진영으로 도망갔다.

2) ‘-(으)니까’

연세한국어사전(2004: 423쪽)

(1) 이유를 나타냄

비료가 너무 진하면 도리어 해가 되니까,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원인을 나타냄

참, 언 밖에 나가 있던 사이의 일이니까 모르겠구나.

3) ‘아서’와 ‘-(으)니까’의 의미론적 차이점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와 ‘-(으)니까’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전자는 대체로 ‘원인’, 후자는 ‘이유’ 제시 기능의 경향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남기심(1978)에서 ‘아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으)니까’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남기심·루코프(1983)에서 ‘아서’는 ‘원인 밝힘’을, ‘-(으)니까’는 ‘따짐’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때 ‘따짐’이라는 것은 ‘이유 밝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유와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유를 말할 때와 부드럽게 말할 때 ‘아서’를 많이 쓰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특히 이유를 강조하고 싶을 때 ‘-(으)니까’를 많이 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왔어요.(일반적인 이유를 말할 때)
- (나)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 왔어요.(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그리고 이유를 강조하고 싶을 때)
- (다) 철수가 일주일 동안 지각을 했으니까 내일도 지각할 것이다.
- (라) *철수가 일주일 동안 지각을 해서 내일도 지각할 것이다.
- (마)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졌다.
- (바) 봄이 되어서 꽃이 핀다.
- (사)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한다.
- (아) *시험을 봐서 공부를 한다.

예문 (다)는 철수가 일주일 동안 지각한 사실로 미루어 내일도 지각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예문 (라)는 철수가 일주일 동안 지각을 한 것이 내일도 지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때 선행문 S₁의 사건이 후행문 S₂의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서’가 쓰이면 비문이 된다. ‘아서’는 선행문 S₁의 사건이 후행문 S₂의 사건의 원인이 될 때에만 쓰일 수 있다. 위의 예문 (마), (바)에서 선행문 S₁의 사건은 모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아서’가 실현된 것이다. 예문 (아)에서는 선행문 S₁에 ‘아서’가 결합하면 비문이 되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는데, 이는 시험을 보는 사건은 공부를 하는 사건의 근본적인(보편적인) 원인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아서’와 ‘-(으)니까’의 통사론적 분석

문법 연구의 시각에서 보면, 통사구조는 핵심으로 문법형식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구조는 문법형식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의미는 통사로 실현되고 화용은 통사를 기초로 하여 실현되는데, 의미와 화용 간의 관계도 통사를 통해야만 실현된다. 통사구조를 기초로 하여 내부로는 의미를, 외부로는 화용을 파악하고, 형식과 의미, 내부와 외부, 형태와 통태의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사론적인 분석은 입체적인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사론적으로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를 분석하면서 접속문에서의 문법적 제약을 기준으로 첫째, 선행용언이 동작성 용언인지 상태성 용언인지, 혹은 특정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지, 둘째, 서법 제약이 있는지, 셋째, 동일 주어 제약이나 비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지, 넷째,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 등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선행 용언의 의미자질

접속문에서 연결어미는 주로 선행문 S₁의 용언에 결합하여 부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선행 용언의 의미자질이 중요하다. 다음은 ‘-아서’와 ‘-(으)니까’가 선행 용언과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아서’

상태동사 및 동작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 (가) 머리가 아파서 회사에 안 나왔어요.
- (나) 길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 (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팠다.
- (라)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위의 예문 (가)-(라)에서 연결어미 ‘-아서’는 ‘아프다’, ‘좁다’, ‘먹다’, ‘오다’와 같은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아서’는 용언 어간과의 결합에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

(2) ‘-(으)니까’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와 통합하는 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가) 이것이 급하니까 먼저 해 주세요.

(나) 혼자 하면 무섭고 힘드니까 여럿이서 힘을 합쳐 같이 합니다.

(다) 동생은 집에서 일하니까 항상 집에 있다.

(라)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위 예문 (가), (나)처럼 연결어미 ‘-(으)니까’는 ‘급하다’와 ‘힘들다’와 같은 상태동사와 결합해도 적격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예문 (다), (라)에 서처럼 ‘일하다’, ‘가다’와 같은 동작동사하고도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으)니까’는 용언 어간과의 결합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2) 서법 제약

접속문 중에 후행문 S₂에서 서법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인 서법의 유형으로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을 기준으로 한다. 이익섭(2005)⁵⁾에서는 문장형을 서법의 범주로 이해하는 길도 있다고 하였다. 즉, 평서문·의문문·명령문 등을 각각 평서법(平敍法)·의문법(疑問法)·명령법(命令法) 등과 같은 서법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서법 제약은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문장 S₂에서 서법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문법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법 제약을 받는 연결어미는 S₂가 평서문에서는 쓰일 수 있지만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법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아서’

‘-아서’로 연결된 문장 S₀에서는 선행문 S₁에 실현된 행위와 상태가 뒤 문장 S₂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상태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후행문 S₂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실현될 수 없다. 곧, 다음 예문 (가),

5) 이익섭, 『국어학개설』(학연사, 2005), 167-168쪽.

(나)가 그 구체적인 예인데, 이 예문에서 ‘(으)니까’로 통합하면 적격문이 된다.

- (가) *김치가 매워서 드시지 마세요.
(김치가 매우니까 드시지 마세요.)
- (나)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텔레비전을 끄시다.
(드라마가 재미없으니까 텔레비전을 끄시다.)

(4) ‘-(으)니까’

- (가) 그 사람은 항상 약속만 했지 지키질 않으니까(않아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 (나)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니까(공부해서) 고생이 많았겠지요?
- (다) 이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해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 (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없어서) 다음에 삽시다.

S_1 과 S_2 를 이어주는 연결어미 ‘-(으)니까’는 S_2 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이 실현되는 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문 (가)-(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어미 ‘-(으)니까’는 S_2 의 서법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 예문 (다), (라)의 ‘하니까’와 ‘없으니까’에 대해서도 역시 ‘해서’와 ‘없어서’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비문이 되는 것은 ‘아서’의 예문 (가), (나)와 같다고 하겠다.

3) 비동일 주어 제약

비동일 주어 제약이란 문장의 선후행문, 곧 S_1 과 S_2 의 주어가 각각 다르게 실현되어야 적격한 문장이 되는 통사적인 제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일 주어 제약은 동일 제약 S_1 과 S_2 의 주어가 같아야 적격한 문장이 되는 통사적인 제약과 대조해서 실제로 주어 제약이 없는 동일 주어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곧,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아서’

- (가) 전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 (나)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얼른 가 보았다.

위의 예문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로 연결되는

두 문장 S_1 과 S_2 는 통사적으로 주어 제약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가)의 주어는 ‘저’이고 S_1 과 S_2 의 주어는 동일한 ‘저’이다. 예문 (나)의 S_1 의 주어는 ‘소리’이고 S_2 의 주어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누구’이다. 곧, 연결어미 ‘-아서’로 통합되는 두 문장 S_1 과 S_2 는 그 주어가 같거나 다르거나에 관계없이 적격문이 된다.

(6) ‘-(으)니까’

- (가) 무서워하는 너를 보니까 아이가 도망가지. (S_1 과 S_2 의 주어는 동일한 ‘아이’)
- (나)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S_1 의 주어는 발화자인 ‘어느 누구’이고 S_2 의 주어는 명령의 대상인 ‘어느 누구’이다)

위의 예문 (가), (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로 연결되는 두 문장 S_1 과 S_2 는 통사적으로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문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연결어미 ‘-(으)니까’로 연결된 S_0 가 S_1 과 S_2 에서 주어가 같거나 다르거나를 막론하고 적격한 문장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4) 시상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제약

연결어미로 통합되는 두 문장은 우선 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선행문 S_1 과 S_2 의 선후관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연결어미는 ‘-았/었-, -겠’ 등과 같은 시상 선어말어미에 통합될 수 없고, 그 반면에 어떤 연결어미는 시상 선어말어미와 통합될 수도 있다.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가 시상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7) ‘-아서’

S_1 과 S_2 의 연결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S_1 의 연결어미 ‘-아서’의 의미기능은 선행문 S_1 의 행위가 먼저 완료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후행문 S_2 의 행위가 이어진다. 즉, ‘-아서’는 모든 연결문에서 선행문 S_1 과 후행문 S_2 의 시간적인 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문 S_1 의 서술어와 선어말어미 ‘-았/었’과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선어말어미 ‘-았/었’이 아니라도 후행문 S_2 의 행위나 상태보다 앞의 시간을 나타내므로 그것에 ‘-았/었’이 결합되면 ‘과거의 과거(대과거)’가 되어 S_0 전체가 비문이 되는 것이다. 비문의 예는 (가), (나)이다.

- (가) *아버지께서 실직하셨어서 집안이 우울하다.
- (나) *눈이 내리었어서 꽃잎이 다 떨어졌다.
- (다) 커피보다 울무차가 더 유익하겠어서 시켰어요.
- (라) 커피는 너무 달겠어서, 그이가 물을 더 부었어.
- (마) 주스는 인삼차보다 비싸겠어서 내가 시켰다.
- (바) *주스는 인삼차보다 비싸겠어서 내가 시키겠다.
- (사) *주스는 인삼차보다 비싸겠어서 그가 시켰다.

‘아서’는 선행문 S₁에 완료시상 또는 과거시상의 ‘-았/었-’이 통합될 수 없지만, 추측 또는 추정의 선어말어미 ‘-겠-’은 통합될 수 있다.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이 선행문 S₁에 실현되면 후행문 S₂의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거나 2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を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행문 S₂에도 ‘-겠-’이 오면 문장 S₀는 비문이 된다. 예문 (마)가 적격문인 데 반하여 예문 (바)가 비문이 된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예문 (사)처럼 ‘주스가 인삼차보다 비싸겠다’는 추측을 하는 사람은 발화하는 사람이므로 후행문에서 3인칭인 다른 주어, 곧 ‘그가’ 나타나면 비문이 되고 만다.

(8) ‘-(으)니까’

- (가) 그러니까 약 끓으니까 얼른 받아먹고 새 출발을 해야지~
- (나) 과부 땀뺀을 내서라두 이 집에서 떠나기루 했으니까 얼른 와.

연결어미 ‘-(으)니까’는 S₁에서 시상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데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문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아서’와 ‘-(으)니까’의 화용론적 분석

언어 연구를 순수 문법 연구 등 발화(utterance)나 문장 자료에 국한하여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담화(또는 텍스트)의 틀에서 다루는 분야를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 또는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이라고 한다. 한국어 문장은 종결어미에 의해 대부분의 문법현상이 결정되고, 연결어미의 문법적 성질은 그 종결어미의 문법적 성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가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결어미도

특히 그것이 구어에서 많이 쓰이느냐, 문어에서 많이 쓰이느냐에 기준을 둔다면 그 차이를 드러내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어떤 연결어미에 대하여 ‘주로 문어체에 쓰여’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도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범모(1999)⁶⁾에서도 구어 텍스트인지 문어 텍스트인지에 따라 연결어미의 출현 빈도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Grice(1975)⁷⁾에서는 문장에서 연결어미가 여러 격률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은 연결어미의 협조원칙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연결어미의 사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무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어미의 선택에서도 공손원칙이 지켜진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협조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가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공손원칙(politeness principle)’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Grice(1975)에서는 연결어미를 통한 화자가 청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공손하게 나타내는 화용적인 원칙을 ‘공손원칙’이라고 하였다. ‘공손원칙’ 역시 협조원칙과 마찬가지로 격률들이 뒤따르는데, 이 격률들은 발화 수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명령·요구·충고와 같은 발화 수반 행위, 약속·맹세·제공과 같은 발화 수반 행위, 주장·자랑·불평 등의 발화 수반 행위, 그리고 축하·감사·칭찬 등의 발화 수반 행위와 관련되어 격률이 적용된다.

1) ‘아서’의 공손원칙

‘인과관계’ 연결어미 중 ‘아서’와 ‘-(으)니까’가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음이 남기심·루코프(1983)에서 지적된 바 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아서’는 청자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므로 공손하고 사교적인 느낌을 주며, ‘으니까’는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시키고 주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부담감을 주고 강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6) 강범모, 『형식의 미론과 한국어 기술』(한신문화사, 1999), 470-475쪽.

7) Paul H.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m Syntax & Semantics: Speech Act*, Vol. 3,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eds.)(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 41-58.

(1)

(가) 일이 있어서 공항까지 못 나가겠습니다.

(나) 일이 있으니까 공항까지 못 나가겠습니다.

(1)의 예문이 사용된 담화 상황이 손님을 마중 나가야 할 경우라면 자기의 공손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화자가 상대방에게 (나)보다는 (가)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화자가 공손원칙의 격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말채치 격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화자가 ‘불평’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가) 웬일로 영이도 책을 읽고 있니?

(나) ㉠ 엄마가 읽으라고 하셔서 읽는 거예요.

㉡ 엄마가 읽으라고 하시니까 읽는 거예요.

위의 예문은 화자가 ‘불평’을 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나)의 ㉠, ㉡은 자기가 책을 읽는 것이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책을 읽으라고 하시기에 읽는 것인데 화자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불만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화자는 ㉡보다는 ㉠ 표현을 통해 자신이 책을 읽게 된 원인을 진술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인정격률’의 준수로 볼 수 있다.

또 관습상의 감사표현이나 사과표현에서 ‘아서’가 쓰이는 것도 ‘아서’가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4)

(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 번거로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문 (3), (4)에서 ‘아서’를 ‘(으)니까’로 대치한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으)니까’로 표현하여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문 (3)은 인정격률, 예문 (4)은 겸양격률의 준수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는데’와 ‘(으)니까’의 공손원칙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와 배경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는데’는 공손원칙의 실현에서 대조가 되므로 ‘(으)니까’의 공손원칙을 분석할 때 ‘는데’가 꼭 같이 언급된다. ‘는데’와 ‘(으)니까’가 명령, 제안을 하는 표현에서 공손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5)

(가)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갑시다.

(나)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6)

(가) 날씨가 추운데 옷을 더 입으세요.

(나)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더 입으세요.

예문 (5), (6)에서 보듯이 ‘(으)니까’와 ‘는데’는 제안·명령의 후행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행동수행에 관련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는데’는 대표적인 관계 의미가 ‘배경’인데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관계에서 화용론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이유·원인’이 대표 의미인 ‘(으)니까’에 비해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명시적(明示的)이지 않다. ‘는데’가 나타내는 이유가 명시적이 아니어서 화자의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실제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가), (나)가 손님인 상황

(가) 방이 추운데 난로를 좀 피우지요.

(나) 방이 추우니까 난로를 좀 피우지요.

예문 (7)의 (가)가 청자에게 난로를 피우자는 제안을 한 이유는 자신이 춥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보다 암시적인 (가)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의 제안을 청자에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방이 춥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청자 스스로 방이 춥다는 사실과 난로를 피우는 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청자에게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가 손님으로 간 상황에서 (가), (나) 두 사람 사이에 '방이 추우면 난로를 피운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으)니까'를 쓰면 화자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이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며, 어떤 경우 자신이 춥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청자를 원망하는 태도까지 보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으)니까'를 사용한 (나)는 행위를 제안하기보다는 명령의 발화 수반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청자에게 부담을 주어 무례하게 여겨질 것이다.

(8) 귀가하는 아들과 엄마

(가) 엄마: 어서 오너라.

(나) 아들: ㉠ 배가 고픈데 밥 좀 빨리 주세요.

㉡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빨리 주세요.

(9)

(가) 아버지: 무슨 일이나?

(나) 딸: ㉠ 책을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 책을 사야 하니까 돈 좀 주세요.

예문 (8나)의 표현 ㉠은 밥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아들로서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청자인 엄마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 엄마 스스로 밥을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은 자신의 배고픈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다. 청자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재촉'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의 상태가 청자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당연한 이유로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공손하다고 볼 수 없다. 예문 (9)의 대화에서도 딸이 아버지에게서 책값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표현으로는 ㉠보다 ㉡이 공손하다. 돈을 받아야 하는 딸의 처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책을 사는 것이 돈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임을 내세우는 듯한 표현보다 더 공손하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태도가 청자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아는 화자는 이 모든 경우에 ‘-(으)니까’보다 ‘는데’를 쓰는데, 이는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말재치 격률의 준수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Ⅲ장 1절에서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아서’와 ‘-(으)니까’에 대하여, Ⅲ장 2절에서는 통사론적 측면에서 ‘아서’와 ‘-(으)니까’에 대하여, Ⅲ장 3절에서는 화용론적 측면에서 공손원칙에 의한 ‘아서’와 ‘-(으)니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 측면의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의미자질(semantic feature) 표시방법으로 긍정 표시는 ‘+’로, 부정 표시는 ‘-’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삼유어법(三維語法)’이 적용된 교육방법을 활용하면 두 연결어미의 특징과 용법을 일목요연하게 습득할 수 있어 향후 효율적인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 ‘아서’

S₁의 용언어간 연결어미 -S₂

(가) 통사제약

㉠ 시상 선어말어미 제약(+)

‘-았’, ‘-겠’

㉡ 비동일 주어 주제 S₁의 주어-S₂의 주어(-)

㉢ 결합용언 S₁(+)-S₂(-)

㉣ 서법제약 S₁-S₂(+)

(나) 화용론적 특성 공손원칙(+)

(2) ‘-(으)니까’

(가) 통사제약

- ㉠ 시상 선어말어미 제약(-)
‘-았’, ‘-겠’
- ㉡ 비동일 주어 제약 (-)
- ㉢ 결합용언 S₁(-)-S₂(-)
- ㉣ 서법제약 S₁(-)-S₂(-)

(나) 화용론적 특성 공손원칙(-)

이 글에서는 일반 언어 이론과 함께 문법 연구 방법인 ‘3개평면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를 분석하였다. 즉, ‘의미 평면’, ‘통사평면’, ‘화용평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 ‘(으)니까’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3개평면이론’에 의하면 모든 문장은 ‘의미, 통사, 화용’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미 층위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연결어미를 분류하고 문장의 각 구성성분의 결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약을 받는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언어의 기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과 구성성분 간의 관계를 밝히는 구조주의 문법이론의 연구방법인 ‘문법에 대한 정태 연구(靜態研究)’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언어와 인간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어미에 대한 ‘동태연구(動態研究)’를 시도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의미론적 측면의 분석 결과와 통사론적 측면의 분석 결과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결어미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와 결부된 화용론적 측면인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협조원칙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교육적인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특징과 용법을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삼유어법(三維語法)’을 적용하여 연결어미 ‘-아서’와 ‘-(으)니까’의 전면적인 특징과 용법을 정리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특성』. 『어학연구』 제19권 1호, 1983, 53-73쪽.
_____,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1999, 470-475쪽.
- 권재일, 「현대국어의 접속문 어미 연구」. 『언어학』 6, 한국언어학회, 1985, 3-21쪽.
- 김수정, 『조선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탑출판사, 2003.
- 김승곤, 「한국어 연결형어미의 의미분석 I」. 『한글 173-174』, 한글학회, 1979, 53-73쪽.
- 김종택 외,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1992.
- 김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이유 표현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93-214쪽.
- 김진수,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1994.
- 남기심, 「국어 연결어미의 활용론적 기능-나열형 ‘-고’ 중심으로」. 『연세논총』 제15집, 연세대학교, 1978, 1-21쪽.
- 남기심·루코프, 「논리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1983, 2-26쪽.
-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손성옥, “Cognition, Affect, and Topicality of the Causal Particle Nikka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2*, 1993, pp. 83-93.
- 윤평현, 『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1.
_____, 『현대 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5, 150-176쪽.
- 이상복,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아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 연세대학교, 1978, 59-80쪽.
_____, 「연결어미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 배달말학회, 1981, 55-80쪽.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2005, 167-168쪽.
- 이정관, 「한국어 학습자언어에 나타난 ‘아서’와 ‘니까’의 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광군, 『조선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월인, 1999.
- 정정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人文論叢』 10,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37-62쪽.
- 최현배, 『우리말본』. 집고고친판, 정음사, 1982.
- 허웅, 『국어학』. 샘문화사, 1984.
- 황화상, 「연결어미 ‘아서, -니까’의 의미기능과 후행절 유형」. 『국어학』 51, 2008, 57-88쪽.

范曉, 『三个平面的語法觀』. 北京: 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金立鑫, 『語法的多視角研究』. 外教社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2.
邵敏敬等, 『漢語語法的立体研究』. 商務印書館, 2000.
索緒爾著·高名凱譯, 『普通語言學教程』. 商務印書館, 1980.
袁暉·戴耀晶, 『三个平面: 漢語語法研究的多維視野』. 語文出版社, 1998.

Charles Morris, C. W., *Foundations of Theory of Sig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dited by C. Bally & A. Sechehaye and translated by W. Baskin, London: Peter Owen Ltd., 1959.

Grice, Paul H.,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 Semantics: Speech Act* Vol. 3,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e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 41-58.

국 문 초 록

전통문법에서는 문법현상에 대한 의미적·통사적인 분석은 문법의 생성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주로 문법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정태연구(靜態研究)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화용론적인 분석은 언어형식의 정보전달 능력을 강조하므로 문법에 대한 동태연구(動態研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복잡한 체계이므로 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완전한 연구를 이루기가 어렵다. 문법 연구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 아니라 통사적 측면, 의미적 측면, 그리고 화용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형식과 의미의 결합, 정태와 동태의 결합, 구조와 기능의 결합, 기술과 설명의 결합방식 등을 통해서 연구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세 가지 복합적 연구이론, 중국어로는 3개평면이론(三個平面理論)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한국어 문법, 특히 연결어미 의미 및 그 기능과 언어교육에 적용하는 의미론적·통사론적·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중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 -(으)니까’의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밝혀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투고일 2016. 9. 20.

심사일 2016. 10. 30.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3개평면이론(三個平面理論, Three-plane Theory), 연결어미(Subordinating Conjunctions), -아서; -(으)니까

Abstracts

A Study of Korean Subordinating Conjunctions “-아서, -(으)니까” **Chen, Yan-ping**

Syntactic and semantic researches on grammatical forms in traditional grammar mainly emphasize the generative ability of grammar and largely focus on the description of grammatical forms, so we regard it as static grammatical study. Whereas, pragmatic analysis stresses the informative function of linguistic forms, which is so called dynamic study. However, it is hard to construct an intact grammatical study no matter we probe into grammar from static or dynamic sphere. Thus, we employ “Three-plane Theory” to undertak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grammatical forms in terms of the combinations of form and sense, statics and dynamics, structure and function, description and explanation. The current study applies “Three-plane Theory” to Korean grammar, especially to the investigation of meanings and functions of Korean subordinating conjunctions and employs it in the study of language education, deploring Korean subordinating conjunctions “-아서” and “-(으)니까” which are used to express causes and reasons from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perspectives and further analyzes their discrepancies with an aim to propose effective teaching schemes.